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From a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권윤아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 연구원 김득성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 : Yoon A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Research Fellow : Deuk S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 path model in which men's and women's 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CBEMC) may be influenced directly and indirectly, via negative interpretations of their spouse, by their spouse's problem behavior, the couple's turning toward bids, and dyadic perspective-taking. Self-re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498 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living in Busan, Korea. Multiple-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path model was not equivalent for men and women. Their couple's turning toward bids and dyadic perspective-taking for men, and their spouse's problem behavior and dyadic perspective-taking for women, had direct effects on CBEMC. Further, their spouse's problem behavior and the couple's turning toward bids had indirect effects on CBEMC through negative interpretations in both men and women. The indirect effect of dyadic perspective-taking on CBEMC was significant only for men. Finally, considering total effects, dyadic perspective-taking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CBEMC for both genders.

Corresponding Author : Yoon A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Kumjung-k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3342 Fax: +82-51-513-7976 E-mail: e-kya@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주제어(Key Words) :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communication behavior escalating marital conflict), 배우자의 문제행동(spouse's problem behavior), 일상적 부부호응도(couple's turning toward bids), 배우자 조망수용(dyadic perspective-taking), 부정적 해석(negative interpret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만나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그런데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 결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다(Driver, Tabares, Shapiro, Nahm, & Gottman, 2003). 특히 Gottman(1999)은 관찰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 상황에서 비난, 방어, 경멸 및 냉담을 모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부부들이 나중에 94%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river et al., 2003). 이것은 이 네 가지 의사소통 행동이 상대방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켜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Driver et al., 2003). Gottman(1999)은 불만이 있을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불평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갈등이 한 단계 악화되며, 비난에 익숙해지면 이보다 더 강한 방어, 경멸 및 냉담을 차례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요인이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혼의 위험요인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유발하는 기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우울이나 애착 등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성인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서(Kurdek, 2005)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현재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인지행동적 특성들 중에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지행동적 관점은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 이론이 결합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에는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결혼관계의 경우, 부부는 서로에게 환경이 되므로

각 배우자는 끊임없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Epstein, Baucom, & Daiuto, 1997). 그러므로 부부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자극과 결과로 작용함으로써 각 배우자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Baucom, Epstein, LaTaillade, & Kirby, 2008). 특히 결혼생활에서 지속되는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불쾌한 생활사건으로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Sanford, 2003). 반면에 부부가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호응을 잘하는 것은 부부사이에 긍정적 감정이 많이 쌓이게 함으로써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Gottman & Driver, 2005; Gottman & Levenson, 1999).

인지행동적 관점은 사건에 대한 인지적 요인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배우자 조망수용은 공감(empathy)의 인지적 요소로서(Long, 1993a) 타인중심적인 관점을 형성시키므로(Mohr, Howells, Gerace, Day, & Wharton, 2007)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갈등 연구자들(Beck, 2005; Christensen & Jacobson, 2000; Markman, Stanley, & Blumberg, 2004)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관련해서,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무관심, 무시, 몰이해 및 통제로 인지하는 부정적 해석이 사소한 문제에 과민 반응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종류의 부정적 해석은 순간 빠르게 떠오르며 강렬한 감정을 수반하므로(Wright, Basco, & Thase, 2009)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위의 네 가지 부부관계 관련변인들-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배우자 조망수용 및 부정적 해석-의 영향을 입증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관련변인들 중에서도 부정적 해석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인지 이론은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를 부정적 해석이 매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Baucom et al., 2008). 이는 부정적 해석이 배우자의 문제행동 및 일상적 부부호응도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거듭될수록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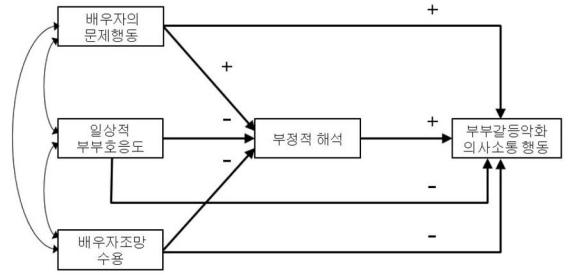
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쉽다(Beck, 2005). 또 평소에 부부간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호응하기를 소홀히 할수록 배우자의 모든 행동이나 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갈등 논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Gottman & Gottman, 2008). 한편, 부정적 해석은 배우자 조망수용과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간의 관계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고(Beck, 2005), 부정적 해석이 많아질수록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유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이 각각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지향적이고 친밀감 욕구가 더 크며(Christensen & Heavey, 1990) 부부사이의 문제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Sillars, Roberts, Leonard, & Dun, 2000). 이러한 남녀 차이는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유발되는 기제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 배우자의 문제행동: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배우자의 행동이다.
- 일상적 부부호응도: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정서적 연결을 시도하는 배우자의 말 걸기에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지지하는 정도이다.
- 배우자 조망수용: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인지적 경향이다.
- 부정적 해석: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무관심, 무시, 몰이해 및 통제로 해석한 경험이다.
-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배우자와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부부사이에 부정적 감정과 긴장감을 상승시키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며, 비난, 방어, 경멸 및 냉담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은 경로모형이다.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하고¹⁾, 본 연구모형을 규명하기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관한 인지행동적 관점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내적인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최상진, 2004). 그러므로 초기의 행동주의 연구자들은 부부관계를 손상시키는 원인으로서 의사소통 행동에 주목하였다(Fincham, 2003). 의사소통 행동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찰 가능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서 말, 표정, 시선, 몸짓, 자세, 준언어(paralanguage) 등이 포함된다(권윤아, 김득성, 2008). 많은 연구들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낮은 결혼만족도나 이혼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Fincham, 2003) 낮은 결혼만족도나 이혼과 특별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부부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 행동들이었다(Fincham, 2003; Gottman, 1999). 이러한 의사소통 행동들은 Gottman(1999)이 발견한 비난, 방어, 경멸 및 냉담으로 요약될 수 있다(Driver et al., 2003; Young & Long, 2009). Driver 외(2003)는 비난은 인신공격인 면이, 방어는 반격적인 면이, 경멸은 비웃음과 멸시가 그리고 냉담은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면이 상대방의 적대감을 더욱 상승시켜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환경 자극에 의해 결정된

1)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수록 불만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호응하거나 조망수용하려는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 부부호응도나 배우자 조망수용이 줄어들수록 불만과 오해가 커지면서 배우자의 문제행동에 더 많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부호응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감정이 쌓이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배우자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조망수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공감에 잘 되어서 부부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고 본다. 즉, 특정한 행동은 선행 사건에 의해 동기화되고 뒤이어 일어나는 결과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권중돈, 김동배, 2009). 그래서 환경 자극만 바꾸어주면 행동은 변한다고 가정한다(최상진, 2004). 부부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극과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행동주의 부부치료자는 부부가 주고받는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기능적인 분석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Baucom et al., 2008).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늘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강조한다.

인지 이론은 우리가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없다고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개념들이나 신념체계에 기초하여 보고 해석하며(Olsen & Stephens, 2009),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양식이 매우 달라진다고 본다(Nichols & Schwartz, 2007).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 이론이 통합된 인지행동적 관점은 행동과 인지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한다(Nichols & Schwartz, 2007). 이 관점에 따르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나 해석에 의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관련변인들

1) 배우자의 문제행동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는 생활방식, 재정, 성생활, 친인척이나 양육 등 여러 영역에서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을 광범위하게 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문제행동은 보통 고쳐지지 않고 결혼생활에서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다(Gottman, 1999; Gottman & Gottman, 2008; Wile, 2008). 이러한 경우 그 문제에 민감해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논쟁이 가열될 수 있다(Christensen & Jacobson, 2000). Gottman(1999)은 결혼생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비난, 방어, 경멸 및 냉담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Sanford(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에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비난, 경멸 등의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상적 부부호응도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지지하는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친근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정서적 연결 기제이다(Gottman, 1999). 부부가 조금씩이라도 자주 서로의 말 걸기(bids)에 호응을 하면 부부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이 누적되고, 누적된 긍정적인 감정이 갈등과 같은 중요한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Driver, 2006).

Driver(2006)는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 서로 호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부부가 더 적대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Gottman과 Levenson(1999)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하루 일과를 나누는 대화에서 서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후의 갈등 논의에서 비난, 방어, 경멸 및 냉담을 훨씬 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ttman과 Driver(2005)의 연구에서도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우자 조망수용

조망수용은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줄여주며(김진경, 1993) 분노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Mohr et al., 2007) 상생적 갈등해결에 가장 중요한 사회인지적 능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Corcoran & Mallinckrodt, 2000; Gottman, 1999). 반면 타인의 관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타인에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Long & Andrew, 1990), 갈등이 힘겨루기로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Schindler, Hahlweg, & Revenstorf, 2009). 실제로 여러 연구(정창영, 1997; Corcoran & Mallinckrodt, 2000; Rizkalla, Wertheim, & Hodgson, 2008)에서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경쟁적인 갈등양식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러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조망수용보다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이 결혼만족도(Long, 1993a; Long & Andrews, 1990)나 이혼(Long, 1993b)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부정적 해석

결혼은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특별하다(Beck, 2005). Beck(2005)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하는 행동의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부들은 부단히 배우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며, 사랑과 안정성과 같은 상징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배우자의 행동이 사소한 것이라도 사랑과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각하면 과잉 반응을 하기 쉽다고 하였다.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과잉 반응을 유발하는 생각은 '사랑과 배려 대 무관심과 몰이해' 혹은 '존중 대 무시'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서(Beck, 2005), 배우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심이 들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는 등의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Markman et al., 2004). 이러한 해석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같은 취약

한 감정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Christensen & Jacobson, 2000)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사랑과 존중, 인정과 관련된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아주 크고 깊은 문제가 되고(Christensen & Jacobson, 2000) 감정이 폭발하기 쉽다(Markman et al., 2004).

3.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부정적 해석의 매개

배우자에 대한 인지는 관계에서 경험한 것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Larsen, 2004).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배우자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러한 해석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거듭되면 사람들은 배우자가 사랑이나 존중과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Beck, 2005).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이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Sillars et al., 2000). 또 Gottman과 Gottman(2008)은 부부가 매일 관심을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말 걸기와 호응하기를 소홀히 할 때 배우자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갈등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상은 배우자의 문제행동과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정적 해석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 해석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우자도 옳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고 모욕과 거부가 완화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고 이렇게 해석한 결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등을 돌리기 쉽기 때문이다(Beck, 2005). 그러므로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

선행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부부문제나 배우자의 문제점을 더 많이 발견하며(Miller, Yorgason, Sandberg, & White, 2003), 배우자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송시내, 1999). 그리고 여성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더 높고(Long & Andrews, 1990) 배우자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Notarius, Benson, Sloane, Vanzetti, & Homyak, 1989).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지향성과 친밀감 욕구가 더 크고(Christensen &

Heavey, 1990) 부부사이의 문제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Sillars et al., 2000)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녀 차이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에서도 나타나, 김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이 여성의 경우에만 부정적인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Gottman과 Driver(2005)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여성보다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5개구(남구, 동래구, 북구, 서구, 중구)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결혼 1년 차 이상의 초혼 남녀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파트, 회사 및 교회를 통해서 유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자녀가 있는 결혼 1년 차 이상의 남녀로 한정하는 이유는 자녀의 존재가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 1년차 이상은 신혼의 효과가 감소되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패턴이 어느 정도 정착된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567부 중 누락되었거나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98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30명(46.2%), 여성이 268명(53.8%)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36~40세가 남녀 각각 87명(37.8%)과 97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남녀 각각 160명(69.6%)과 134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남성이 관리직·전문기술직(34.8%)이, 여성은 무직·주부(39.2%)가 가장 많았다. 본인의 수입은 남성은 201~300만원(35.2%)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소득 없음(34.7%)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수입은 남성은 소득 없음(38.3%)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1~300만원(32.5%)이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10~14년이 남녀 각각 31.7%와 36.2%로 가장 많았다. 이상에서 교육수준, 직업, 수입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대상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높은 편이었다.

2. 측정도구

1) 배우자의 문제행동

배우자의 구체적인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N(%)	
		남 성 N = 230	여 성 N = 268
연령	35세 이하	39(17.0)	52(19.4)
	36~40세	87(37.8)	97(36.2)
	41~45세	63(27.4)	87(32.5)
	46~50세	29(12.6)	24(8.9)
	50~54세	11(4.8)	6(2.2)
	무응답	1(0.4)	2(0.8)
교육 수준	초중등 졸	2(0.8)	5(1.9)
	고졸	33(14.4)	104(38.8)
	대졸	160(69.6)	134(50.0)
	대학원 졸	34(14.8)	25(9.3)
	무응답	1(0.4)	0(0.0)
직업	무직·주부	1(0.4)	105(39.2)
	노무직·생산기능직	12(5.2)	21(7.8)
	기술직·판매/서비스직	29(12.6)	30(11.2)
	자영업	22(9.6)	15(5.6)
	사무직·공무원	69(30.0)	29(10.8)
	관리직·전문기술직	80(34.8)	60(22.4)
	고위전문직	10(4.4)	0(0.0)
	무응답	7(3.0)	8(3.0)
본인 수입	소득 없음	3(1.3)	93(34.7)
	1~100만원	1(0.4)	52(19.4)
	101~200만원	27(11.7)	52(19.4)
	201~300만원	81(35.2)	33(12.3)
	301~400만원	54(23.5)	19(7.1)
	401만원 이상	58(25.2)	12(4.5)
무응답	6(2.6)	7(2.6)	
배우자 수입	소득 없음	88(38.3)	5(1.8)
	1~100만원	30(13.0)	4(1.5)
	101~200만원	41(17.8)	36(13.4)
	201~300만원	44(19.1)	87(32.5)
	301~400만원	13(5.7)	68(25.4)
	401만원 이상	7(3.1)	61(22.8)
무응답	7(3.0)	7(2.6)	
결혼 기간	1~4년	33(14.4)	17(6.3)
	5~9년	61(26.5)	35(13.1)
	10~14년	73(31.7)	97(36.2)
	15~19년	37(16.1)	85(31.7)
	20~24년	13(5.7)	25(9.3)
	25년 이상	12(5.2)	7(2.6)
무응답	1(0.4)	2(0.8)	

(1998)의 부부갈등 척도와 Sanford(2003)의 갈등 항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척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문항은 생활습관, 음주·흡연, 금전관리, 가사일, 자녀양육 및 교육, 친인

척·집안대소사, 부부간 성생활 등의 15개 영역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배우자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총 15 문항이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음' (1점), '거의 없음' (2점), '가끔 있음' (3점), '자주 있음' (4점), '거의 항상 있음' (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2) 일상적 부부호응도

일상적 부부호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준기(2005)의 다가가기²⁾ 척도 10문항에서 본 연구자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가치나 선호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부부 상호간의 호응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총 6문항(예: 평소에 우리는 서로가 관심을 필요로 할 때 대부분 응해 준다)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호응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3) 배우자 조망수용

배우자 조망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공감 척도의 조망수용 하위척도를 수정한 신경일(1994)의 6문항에서 본 연구자가 의미가 중복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내용을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으로 수정하여 총 4문항(예: 가끔 배우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배우자 입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4) 부정적 해석

Markman 외(2004)의 숨겨진 문제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부정적 해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무관심(예: 배우자가 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시(예: 내 노고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몰이해(예: 나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및 통제(예: 나를 통제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해석한 정도를 묻는 총 12문항이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2) Gottman(1999)은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정서적 연결을 청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행동을 '말 걸기(bids)' 라고 하고, 배우자의 말 걸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turning toward' 라고 명명하였다. 'turning toward' 개념은 국내에서 '다가가기' (김준기, 2005)로 번역되었으나, '다가가기'는 자칫 다가가서 말을 거는 의미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turning toward'를 말 걸기에 대한 '호응하기'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2〉 남성과 여성의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남성(N = 230)					여성(N = 268)				
	1	2	3	4	5	1	2	3	4	5
1 배우자의 문제행동	-					-				
2 일상적 부부호응도	-.48***	-				-.56***	-			
3 배우자 조망수용	-.28***	.53***	-			-.36***	.53***	-		
4 부정적 해석	.54***	-.61***	-.42***	-		.60***	-.64***	-.30***	-	
5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43***	-.56***	-.54***	.60***	-	.47***	-.47***	-.48***	.49***	-

*** $p < .001$

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5)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권윤아와 김득성(2008)이 개발한 19문항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비난 6문항(예: '당신은 항상, 또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다), 방어 5문항(예: 배우자가 하는 말에 놀라 필쩍 뛰면서 전부 부인한다), 경멸 6문항(예: 가시 돌친 욕설과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 냉담 6문항(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이며, 네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많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5.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³⁾.

3)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Sobel의 공식은 모수추정치가 점근적인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정규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대표본이어야 하는데(김대업, 2008), 본 연구는 표본수가 작고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정규분포라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Shrout and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하고 편향수정된(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구하여,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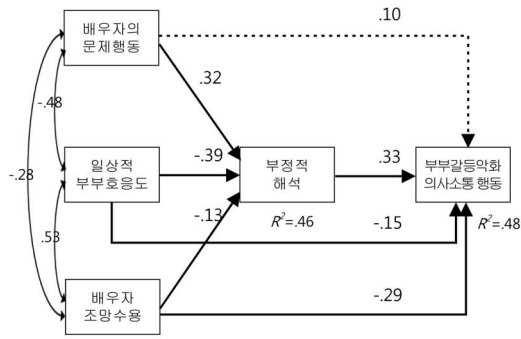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라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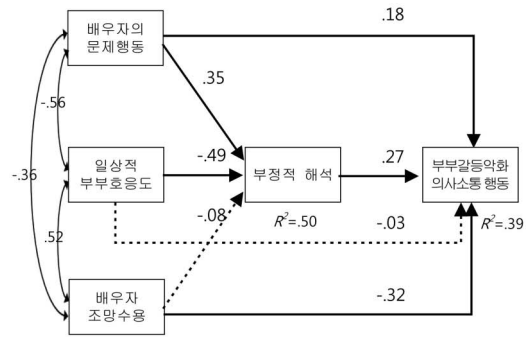
먼저, 남녀 각각 부부관계 관련변인들 및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남녀 모두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것이 일상적 부부호응도와 부정적 해석 간의 상관관계로 남성은 $r = -.61(p < .001)$, 여성은 $r = -.64(p < .001)$ 였다. 독립변인에 대해 다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모두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남녀 각각 .51~.70, .45~.72로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남녀 각각 1.42~1.96, 1.40~2.23으로서 10보다 적으며,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남녀 각각 30미만으로 나타나 다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로모형을 남녀 집단에 동시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전체 경로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를 남녀 집단 간 동일하게 고정된 모형의 χ^2 값과 고정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χ^2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저모형의 χ^2 값은 611.18, 자유도(df)는 14였다($p < .001$). 남녀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은 기저모형보다 자유도 7의 차이에서 χ^2 값이 15.72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5$),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로모형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의 다집단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남성과 여성의 경로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2〉와 같다.



남성 경로모형



여성 경로모형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경로모형(β)

1) 남성의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남성의 다집단분석 결과는 〈표 3〉,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과 〈그림 2〉에서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제외한 부정적 해석, 배우자 조망 수용 및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부정적 해석을 많이 할수록(β = .33, p < .001)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조망수용이 낮을수록(β = -.29, p < .001), 평소에 부부사이에 서로 호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β = -.15, p < .05) 증가하였다.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48%(R² = .48)였다.

매개변인인 남성의 부정적 해석은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낮을수록(β = -.39, p < .001)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β = .32, p < .001) 배우자 조망수용이 낮을수록(β = -.13, p < .05)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부정적 해

석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증가시켰다(β = .33, p < .001). 이에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 각각에서 부정적 해석에 이르는 경로들과 부정적 해석에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세 독립변인이 모두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 독립변인의 간접효과 크기가 유의하게 0이 아닌지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여 붓스트랩 방식으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 크기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를 곱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 세 독립변인의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의 문제행동 B = .19, 95%CI = .10~.32; 일상적 부부호응도 B = -.51, 95%CI = -.84~- .30; 배우자 조망수용 B = -.23, 95%CI = -.52~- .04). 세 독립변인 중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일상적 부부호응도(β = -.13)였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문제행동(β = .11), 배우자 조망수용(β = -.04) 순이었다.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과 부정적 해석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다집단분석 결과

		N = 230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B	t	R²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배우자의 문제행동	.10	.19	1.81	.48
	일상적 부부호응도	-.15	-.61*	-2.40	
	배우자 조망수용	-.29	-1.56***	-5.68	
	부정적 해석	.33	.55***	4.71	
	상수		66.30		
부정적 해석	배우자의 문제행동	.32	.35***	5.51	.46
	일상적 부부호응도	-.39	-.93***	-6.05	
	배우자 조망수용	-.13	-.42*	-2.20	
	상수		41.67		

β = 표준화 경로계수; B = 비표준화 경로계수; R² = 결정계수 *p < .05, ***p < .001

〈표 4〉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N = 230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배우자의 문제행동	.10	.11*	.21*	
	일상적 부부호응도	-.15*	-.13*	-.28*	
	배우자 조망수용	-.29***	-.04*	-.33*	
	부정적 해석	.33***	-	.33*	

*p < .05, ***p < .001

〈표 4〉에서 관련변인들의 총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 조망수용($\beta = -.33$)과 부정적 해석($\beta = .33$)이었다. 그 다음으로 일상적 부부호응도($\beta = -.28$), 배우자의 문제행동($\beta = .21$) 순이었다. 붓스트랩 방식으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네 변인 모두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조망수용 $B = -1.79$, $95\%CI = -2.36 \sim -1.28$; 부정적 해석 $B = .55$, $95\%CI = .31 \sim .77$; 일상적 부부호응도 $B = -1.12$, $95\%CI = -1.53 \sim -.63$; 배우자의 문제행동 $B = .38$, $95\%CI = .17 \sim .60$). 따라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해석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 여성의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여성의 다집단분석 결과는 〈표 5〉,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와 〈그림 2〉에서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일상적 부부호응도를 제외한 배우자 조망수용, 부정적 해석 및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조망수용이 낮을수록($\beta = -.32$, $p < .001$)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해석을 많이 할수록($\beta = .27$, $p < .001$),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beta = .18$, $p < .01$) 증가하였다.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39\%(R^2 = .39)$ 였다.

매개변인인 여성의 부정적 해석은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낮을수록($\beta = -.49$, $p < .001$)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

〈표 5〉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및 부정적 해석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다집단분석 결과

		N = 268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B	t	R^2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배우자의 문제행동	.18	.28**	2.83	.39
	일상적 부부호응도	-.03	-.08	-.37	
	배우자 조망수용	-.32	-1.79***	-5.84	
	부정적 해석 상수	.27	.36***	4.01	
부정적 해석	배우자의 문제행동	.35	.41***	7.68	.50
	일상적 부부호응도	-.49	-1.16***	-9.08	
	배우자 조망수용	.08	.34	1.39	
	상수		33.63		

β = 표준화 경로계수; B = 비표준화 경로계수; R^2 = 결정계수
** $p < .01$, *** $p < .001$

어날수록($\beta = .35$, $p < .001$) 증가하였고, 배우자 조망수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증가한 부정적 해석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증가시켰다($\beta = .27$, $p < .001$). 이에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문제행동과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각각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두 독립변인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해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독립변인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의 문제행동 $B = .15$, $95\%CI = .07 \sim .25$; 일상적 부부호응도 $B = -.42$, $95\%CI = -.66 \sim -.22$). 두 독립변인 중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상적 부부호응도($\beta = -.13$)였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문제행동($\beta = .09$)이었다.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관련변인들의 총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 조망수용($\beta = -.30$)이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문제행동($\beta = .28$), 부정적 해석($\beta = .27$), 일상적 부부호응도($\beta = -.16$) 순이었다. 붓스트랩 방식으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네 변인 모두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조망수용 $B = -1.67$, $95\%CI = -2.31 \sim -1.01$; 배우자의 문제행동 $B = .43$, $95\%CI = .26 \sim .62$; 부정적 해석 $B = .36$, $95\%CI = .18 \sim .53$; 일상적 부부호응도 $B = -.50$, $95\%CI = -.94 \sim -.11$). 따라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해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6〉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N = 268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	배우자의 문제행동	.18**	.09*	.28*	
	일상적 부부호응도	-.03	-.13*	-.16*	
	배우자 조망수용	-.32***	.02	-.30*	
	부정적 해석	.27***		.27*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결혼 1년 차 이상의 초혼 남녀 49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부정적 해석을 많이 할수록 배우자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낮을수록 직접적으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48%였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남성의 부정적 해석은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 배우자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증가하였고, 부정적 해석이 증가할수록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간접적으로도 증가하였다. 이때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상적 부부호응도였다.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총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관련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해석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부정적 해석을 많이 할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 직접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은 39%였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여성의 부정적 해석은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 증가하였고, 부정적 해석이 증가할수록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간접적으로도 증가하였다. 이때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상적 부부호응도였다.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총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관련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여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해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배우자 조망수용 및 부정적 해석이 미치는 총효과가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설명력이 남성이 48%, 여성이 39%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경로모형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변인들로 구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행동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경쟁적인 갈등양식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창영, 1997; Corcoran & Mallinckrodt, 2000; Rizkalla et al., 2008)를 지지하며,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 조망수용을 증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정적 해석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통제하려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과잉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견해(Beck, 2005; Christensen & Jacobson, 2000; Markman et al., 2004)를 지지한다.

넷째, 부정적 해석은 배우자의 문제행동 및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정적 해석이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를 매개한다는 인지 이론(Baucom et al., 2008)을 지지한다. 그리고 평소에 부부가 서로 호응하는 상호작용을 소홀히 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 논의가 악화될 것이라고 가정한 Gottman과 Gottman(2008)의 이론을 지지한다.

다섯째,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배우자의 문제행동보다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더 컸다. 이는 배우자의 문제행동보다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정적 해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해석을 하는 원인이 평소 배우자의 잦은 문제행동에 있다고 추측하기 쉬우나,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부정적 해석을 활성화시켜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배우자의 반복적인 문제행동보다는 부부간 일상의 소소한 상호작용 순간들에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흥미로운 점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배우자의 문제행동과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조망수용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 때 여성에게서만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직접적으로 증가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의 문제점을 더 잘 발견할 뿐만 아니라 (Miller et al., 2003) 부부사이의 문제에 민감하여(Sillars et al., 2000) 관계가 잘 되게 하고 배우자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려는 과정에서(Markman et al., 2004)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과 같은 강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일 부부가 친밀해지는 말 걸기에 서로 호응하지 못할 때 남성에게서만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직접적으로 증가한 결과는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Gottman과 Driver(200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부부가 서로 호응하기 시작할 때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감소하는 효과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남성표본이 일반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일수록 부부간에 서로 관심과 공감, 지지의 느낌을 나눌 여유가 있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배우자의 문제행동과 일상적 부부호응도는 각각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Veroff, Douvan, Orbuch와 Acitelli(1998)는 남성은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에서 많은 이득을 누리고, 여성은 많은 고생을 한다는 Bernard(1972)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혼생활을 평가할 때 남성은 긍정적인 경험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여성은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결혼생활에서 남성은 부부 상호간의 지지와 호응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여성은 배우자의 문제점이 고쳐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게만 나타난 결과는 남성은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와 지내온 역사나 배우자에게서 받은 만족감 등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배우자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Fisher(2005)는 남성은 사고를 할 때 한 번에 하나의 사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더 많은 정보를 모아 빠르게 통합하는 복잡한 사고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성은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해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이상에서 배우자 조망수용과 부정적 해석은 남녀 불문하고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여성의 경우에만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은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친밀감 욕구와 관련된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여성보다 남성의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다면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행동적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은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말 걸기에 호응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배우자 입장에서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무관심, 무시, 몰이해 및 통제로 해석할수록 증가하였다. 부부관계 관련변인들 중에서는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갈등해결기술이나 의사소통기술의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적 부부호응도와 배우자 조망수용의 긍정적인 경험 및 배우자의 문제행동과 부정적 해석의 부정적인 경험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조망수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의 문제행동이 자주 일어날수록, 일상적 부부호응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부정적 해석이 증가하였다-단 배우자 조망수용은 남성의 경우에만 부정적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부정적 해석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증가시켰다. 관련변인들 중에서 부정적 해석을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상적 부부호응도였다. 그러므로 부정적 해석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평소에 자주 호응하도록 하여서 긍정적인 감정을 쌓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배우자의 문제행동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일상적 부부호응도는 남성의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 다른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부

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에게는 부부가 서로 평소에 호응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건설적으로 다루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관련변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문제행동, 일상적 부부호응도 및 배우자 조망수용이 부정적 해석의 매개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인지행동적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이 유발되는데 부정적 해석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부정적 해석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배우자의 잦은 문제행동보다 부부가 평소에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호응하기를 소홀히 할 때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자녀가 있는 54세 이하의 초혼 남녀이며, 남성 연구대상자는 일반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는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매우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때 표본수가 적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고 본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관련변인들의 독립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권윤아, 김득성(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Gottman의 네 기수(騎士)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6), 101-113.

권중돈, 김동배(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김대업(2008). **AMOS A TO Z-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파주: 학현사.
 김준기(2005). **부부 쿨하게 살기**. 서울: inb.
 김지현(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경(1993). 인간지향적 관계와 지위지향적 관계가 갈등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시내(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일(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9, 1-37.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창영(1997). 조망과 갈등대처 양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진(2004).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Baucom, D. H., Epstein, N. B., LaTaillade, J. J., & Kirby, J.(2008).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Ed.),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3rd ed., pp. 31-72). New York: Guilford Press.
 Beck, A. T.(2005).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제석봉(역). 서울: 학지사. (1988년 원저발간).
 Bernard, J.(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World.
 Christensen, A., & Heavey, C. 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Christensen, A., & Jacobson, N. S.(2000). *Reconcilable differences*. New York: Guilford.
 Corcoran, K., & Mallinckrodt, B.(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473-483.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Driver, J. L.(2006). *Observations of newlywed interactions in conflict and in everyday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Seattle, WA.
- Driver, J. L., Tabares, A., Shapiro, A., Nahm, E. Y., & Gottman, J. M.(2003). Interactional patterns in marital success and failure: Gottman laboratory studie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rd ed., pp. 493-513). New York: Guilford Press.
- Epstein, N., Baucom, D. H., & Daiuto, A. D.(1997). Cognitive-behavioral couples therapy. In W. K. Halford & H. J. Markman (Eds.), *Clinical handbook of marriage and couples interventions* (pp. 415-449). New York: Wiley.
- Fincham, F. D.(2003). Marital conflict: Correlates, structure and contex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23-27.
- Fisher, H.(2005). The Natural leadership talents of women. In L. Coughlin, E. Wingard, & K. Hollihan (Eds.), *Enlightened power: How women are transforming the practice of leadership* (pp. 133-140).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Gottman, J. M., & Driver, J. L.(2005).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and everyday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 63-78.
- Gottman, J. M., & Gottman, J. S.(2008). Gottman method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Ed.),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138-164). New York: Guilford Press.
- Gottman, J. M., & Levenson, R. W.(1999).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Women are being unfairly blamed.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1, 1-18.
- Kurdek, L. A.(2005).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early in marri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 68-84.
- Larsen, A. N.(2004). *Partners' attributions and level of commitment as predictors of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behavior in discussions of relationship confli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Long, E. C. J.(1993a). Perspective-taking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adjustment marriages: Implications for those in interv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248-259.
- Long, E. C. J.(1993b). Maintaining a stable marriage: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a propensity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21-138.
- Long, E. C. J., & Andrews, D. W.(1990). Perspective-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2004). **행복한 결혼생활 만들기**. 김득성, 김정옥, 김영희, 박충선, 송정아, 권윤아(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년 원저발간).
- Miller, J. B., Yorgason, J., Sandberg, J. G., & White, M. B.(2003). Problems that couples bring to therapy: A view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395-407.
- Mohr, P., Howells, K., Gerace, A., Day, A., & Wharton, M.(2007). The role of perspective taking in anger arousa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507-517.
- Nichols, M. P., & Schwartz, R. C.(2007). **가족치료-핵심 개념과 실제적용**.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정석환, 제석봉(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년 원저발간).
- Notarius, C. I., Benson, P. R., Sloane, D., Vanzetti, N. A., & Homyak, L. M.(1989). Exploring the interface between perception and behavior: An analysis of marital interaction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Behavioral Assessment*, 11, 39-64.
- Olsen, D., & Stephens, D.(2009). **부부 연인보다 아름답게 사는 법-부부심리워크북**. 신희천, 한소영, 윤미혜, 배병훈, 백혜영(공역). 서울: 학지사. (2001년 원저발간).
- Rizkalla, L., Wertheim, E. H., & Hodgson, L. K.(2008). The role of emotion management and perspective taking in individuals'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disposition to forg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594-1601.
- Sanford, K.(2003). Problem-solving conversations in marriage: Does it matter what topics couples discuss? *Personal Relationships*, 10, 97-112.
- Schindler, D., Hahlweg, K., & Revenstorf, L.(2009).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이남옥(역). 서울: 이

너복스. (1998년 원저발간).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Sillars, A. L., Roberts, L. J., Leonard, K. E., & Dun, T.(2000). Cognition during marital conflict: The relationship of thought and talk.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 479-502.

Veroff, J., Douvan, E., Orbuch, T. L., & Acitelli, L. K.(1998). Happiness in stable marriages: The early years.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 152-17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e, D. B.(2008). *After the honeymoon: How conflict can improve your relationship*. Oakland, CA: Collaborative Couple Therapy Books.

Wright, J. H., Basco, M. R., & Thase, M. E.(2009). **인지 행동치료**. 김정민(역). 서울: 학지사. (2006년 원저발간).

Young, M. E., & Long, L. L.(2009). **부부상담과 치료** (2판). 이정연(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11년 3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1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29일